

발전5개사, 성과공유사업 기업 참여 범위 확대

성과공유제운영 효과 면밀히 검토, 향후 탄력운영

5개 발전회사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사업의 기업 참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1월 2일 발전회사에 따르면 발전회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향후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부발전(대표 정장섭)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지원해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발전회사 성과공유제'를 공동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철 중부발전 성과공유추진위원장은 "발전회사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원가절감목표 및 시행과제를 제출하면 발전회사는 경영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며 범위확대를 시사했다.

남부발전(대표 김상갑)도 지난 12월 발전회사 성과공유제 공동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공모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3월 원가절감 과제를 수행하고 외부 원가조사기관을 통해 성과를 측정할 후 5월 단가계약을 체결해 시행할 방침이다. 대상자격은 신제품인증(NEP)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3년 이내 납품실적업체, 연구개발 참여업체, 기자재공급업체 또는 정비적격업체를 위주로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부발전은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남동·서부·동서발전도 중소기업 지원 강화라는 대명제 속에서 올해부터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

장이다.

남동발전(대표 박희갑)은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애로사항을 체크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서부발전(대표 김종신)은 경영체계 및 기술관리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도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마련에 더욱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2006년도에도 전체 기자재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연구개발사업과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동서발전(대표 이용오)도 성과공유제 시행지침에 따라 발전 5사의 공동제정 및 운영 추진은 비슷하겠지만 나름대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발전5사의 추진 방향과 함께 기능인력 양성 및 발전신기술 무상교육 시행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의 장을 여는데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원자력환경기술원, 원자력발전기술원으로 재탄생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기술원이 원자력발전기술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원자력환경기술원은 한수원이 지난 97년 원자력연구소로부터 방사성폐기물사업 관련 조직과 인력을 인수해 설립된 기관으로 기존 방폐물 사업 이외에도 원전 운영 및 건설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지원업무를 수행해왔다.

원자력발전기술원이란 명칭은 지난 9월22일부터 29일 동안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됐다. 한편 원자력발전기술원은 지난 10월 30일 대전시 장동에 신사옥을 건설하고 이주함으로써 새로운 사옥 시대를 열었다.

서부발전, 한국형 IGCC 300MW급 설계 기술 자립 실증플랜트 건설추진 협약 체결

김종신 사장은 12월 22일 산자부 이원걸 차관 주재로 산자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형 IGCC 300MW급 설계기술 자립 실증플랜트 건설추진 협약을 위한 발대식』에 참석하였다.

* IGCC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금번 발대식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환경규제의 강화에 대비하여 향후 미분탄 발전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발전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자부 주관 하에 우리 회사를 비롯한 전력사(한전 및 5개 발전회사), 에너지관리공단, 두산중공업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이원걸 차관은 인사말에서 국제적으로 나날이 치열해지는 에너지원 개발의 중요성과, IGCC가 차지하는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원의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참여기관들에게 맡은 바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992억원 규모로 향후 2014년까지 8년 동안에 걸쳐 진행 될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가스화 공정설계, 실증플랜트 건설, 플랜트 운영기술, 단위공정 국산화의 4가지 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회사는 본 사업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실증플랜트를 태안화력 부지내에 건설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IGCC 사업을 선도하고, 또 다른 성장동력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부발전, 중소기업과 상생위해 지속적 노력

한국중부발전(주)(사장 정장섭)은 지난 12월 27일 삼성동 본

사에서 중부발전 및 발전회사 관계자와 두온시스템(주) 및 현대엔지니어링 등 2개 중소기업 대표가 모인 가운데 “발전회사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중부발전(주) 등 6개 발전회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발전회사 성과공유제”를 공동 시행하고 있다.

“발전회사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원가절감목표 및 시행과제를 제출하면 발전회사는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과제가 완료되어 원가절감 목표가 달성될 경우 중소기업과 발전회사가 6:4의 비율로 원가절감액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박용철 성과공유추진위원장은 “성과공유사업의 목적은 발전회사가 일방적인 중소기업 지원에서 탈피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발전회사 성과공유사업은 현재 신제품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 품목에 한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나, 향후 효과를 검토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진화력 7호기 최초 계통병입 성공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용오) 당진화력본부가 지난 12월 20일 오전 11시부로 당진화력 7호기 최초 계통병입(系統並入)에 성공했다.

계통병입은 송전계통에 발전설비가 운전될 수 있도록 병렬로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일러 점화와 터빈 리셋(Reset) 등을 거쳐 성공한 최초 계통

병입은 25%부하(130MW)까지 증발 후 정지했으며, 동서발전은 향후 지속적인 부하시험과 터빈 베어링 검사 등을 통해 2007년 1월까지 전부하운전을 성공시킬 예정이다.

당진화력 7,8호기는 지난 2004년 3월 건설착공을 시작으로 2004년 8월 보일러 철골입주, 2005년 2월 압력부 설치를 거쳐, 2006년 2월 수압시험, 2006년 4월 최초 수전(Initial Power Receiving), 9월 보일러 최초점화를 거쳐 이번에 7호기 최초 계통병입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당진화력 7,8호기 건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당진화력 7호기는 2007년 5월, 8호기는 같은해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21일 현재 약 92.7%의 공정률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남동발전, 혁신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 되어 정부표창 수상

한국남동발전(사장 박희갑)은 2006년도 혁신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27일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획예산처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06.7.)에 의한 ‘우수기관 표창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222개 공공기관 중 대통령상 3개 기관, 총리상 4개 기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상 6개 기관 등 13개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이로써 우리회사는 정부 혁신평가 5단계, 국가생산성경영체제 6등급 인증에 이어 정부표창까지 수상함으로써 혁신선도 공공기관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으며, 내년도 정부 혁신평가 6단계 진입에 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남부발전, 제1회 KOSPO 우수협력사 시상식 개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상갑)은 KOSPO 우수협력사 인증제도(Best Supplier)를 도입하여 (주)에이비티 등 5개 업체를 우수협력사로 선정, 지난 12월 2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회 KOSPO 우수협력사 인증제도는 협력사의 사기진작 및 자부심을 고취하고 南電 고유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이날 南電은 제1회 KOSPO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주)에이비티(사장 이영제), (주)코캣(사장 배학로), 키벨브기술(주)(사장 민경화), 해룡화학(주)(사장 문봉규) 및 (주)정풍개발(사장 김성언) 등 5개 업체에 표창장 및 상패를 수여하였으며,

아울러 南電의 건설 우수협력사인 성실기계(주)(사장 류지원) 및 성창공업(주)(사장 김기영) 등 2개 업체에 대한 시상도 병행되었다.

한편, 지난 13일 협력사에 무보증,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공동협약을 맺은 바 있는 南電은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LS산전 컨소시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열차제어시스템 1690억원에 수주

LS산전(대표 : 김정만 www.lsis.biz)이 주간사로 참여한 KDB

컨소시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산)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프로젝트를 1690억원에 수주하였다.

KDB(KTX Daegu~Busan) 컨소시엄은 LS산전이 주간사로, 삼성SDS, 프랑스 씨에스이이(CSEE)社, 프랑스 알스톰(ALSTOM)社가 멤버사로 구성되었다.

이번에 수주한 열차제어시스템은 고속철도 선로에 설치되어 열차가 최적의 속도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열차의 진로와 신호 및 속도를 연속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속도가 약 300km에 달하는 고속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스템이다.

LS산전은 지난 2004년 개통된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구간에도 열차제어시스템을 공급한 데 이어 이번 2단

계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어 기술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동대구~부산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2010년 말 개통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KTX 열차의 운행시간이 현재보다 약 3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대구-부산 구간의 기존 선로를 이용하던 KTX 열차가 신설 고속열차 선로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열차의 경부선 이용이 원활하게 된다.

LS산전 관계자는 “향후 열차제어시스템의 설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완벽한 국산화를 중점 추진하여, 2015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및 해외 고속철도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